

진술조서

성명 : 미선(가명)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주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락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 사람은 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1월 4일 19:00경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사건당일 처음 본 관계에 있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를 진행하다.

이 때 사법경찰리 은 진술인 미선(가명)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나요

답 : 네.

문 : 진술인이 고소인 미선(가명)이 맞나요

답 : 네.

문 : 진술인은 피고소인 에 대해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문 : 피고소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 피고소인은 강남의 '페이스'라는 클럽 MD이고 제가 그 클럽 손님이었어요. 그냥 사건당일 처음 봤어요.

문 : 고소장 제출 당시 피의자에 대해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작성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그거는 제가 클럽을 좋아하고 아는 클럽 MD가 많은 아는 오빠가 있는데, 이날은 제가 '페이스' 를 처음 가는거여서 MD 직원을 소개받은 거예요. 아는

MD 없이 모르고 그냥 클럽에 가면 입장료도 내고 가야하고, 소개를 받고 가야
입장료도 없고 술도 그냥 받을수가 있어요.

문 : 피고소인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 갈 때까지 상황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 그날 새벽 1:13쯤 클럽에서 밖에서 처음 봤어요. 들어갈 때 최준 손님으로 들어
갔다고 말을 하고 클럽에 입장을 한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상한게 없었어요.
(피의자가)MD니까 클럽에서 술을 주시거든요. 레몬드랍이랑 엑스밤 이런 술을
공짜로 그분이 주시니까 많이 마시고 놀았어요. 아는 언니랑 저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언니는 그만 먹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놀고 있었고 저는 멀쩡한
것 같아서 조금더 먹겠다고 했는데 MD분이(피의자가) 원래 자기 테이블에
예약한 손님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서 자기도 그냥 그날 술먹고 놀겠다고
해서 같이 놀았죠. 같이 건배하면서 마시고 같이 왔던 언니는 잠깐 있다가 금방
다른데로 가서 저희 둘이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클럽에 EDM이랑 힙존이
있는데 그사람이 힙존에 가자해서 지하에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두 번
정도 반복했어요. 제가 '페이스'에 가기전에 그 근처 '로컬'이라는 클럽에서 1
차로 놀다가 '페이스'로 간거였고, '로컬'에 제 짐을 놔두고 '페이스'로 갔던
상황이어서 그사람이(피의자가) '로컬'로 다시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02:00쯤
'로컬'로 이동을 했죠. 최준MD가 아는 MD를 따라 같이 그 클럽에 들어간
거여서 거기서 또 술을 주니까 술을 먹고 (피의자랑 저랑)둘이서 놀았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스킨십이 없었는데 '로컬'로 이동하고 나서 서로 합의하에
키스를 했어요. 그사람이 하길래 저도 대충 했죠. '로컬'에서 10분~20분 있다가
(피의자가)다시 원래있던 '페이스'로 넘어 갈거니까 짐을 챙기라고 해서 짐을
챙기고 나왔어요. '로컬' 출입구 앞에서 자기가 힘드니까 담배하나만 피고 가자고
했고 '로컬' 맞은편에서 담배를 폈어요(거기가 택시 승강장도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한10분 넘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오더니 (피의자가)저보고

음인

1차 술에
2차 술에

2차 술에

피의자(남)
이 사람이
배달이
안돼
2차 술에
담배를 피는
시간

택시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페이스'에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 이상하긴 했는데 이미 택시를 부른 상황이고 저는 (피의자가)클럽 MD니까 믿은거죠. 타라니까 탔어요. 택시 네비에도 도착 시간이 5분~10분정도면 도착한다고 뜨는데 가면서 제가 "우리 어디가?" 라고 했는데 (피의자가)아무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03:10에 아는 언니한테 다시 '페이스'에 간다고 연락한 걸 보면 03:20쯤 택시를 탔을거예요. 택시를 내리고 나서 제가 "여기어디냐"고 하니가 자기 자취방이래요. 저는 솔직하게 "나 섹스 하는 사람 아니다, 난 원나잇 하는사람 아니고 섹스 할 생각없다" 라고 얘기 하니가 "(피의자가)괜찮다 상관없다 클럽에서 했던 키스만으로 좋았다 잠깐만 쉬다가라"고 했어요. 거기가 신사동이었고, 그 근처에 유명한 클럽이 있었는데 지금 클럽이 좀 핫한 시간이니가 지금 가면 못들어갈 수 있으니 본인 집에서 잠깐 쉬다가 좀만이따 그 클럽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집안으로 가면 안된다는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성관계를)할생각이 없으니가 가도 별일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나봐요. 결국 피의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은 택시로 이동할 때는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나요

답 : 네 그냥.. 그냥 별말없이 앉아서 가서.. 그사람은 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좀 약간 취해있었으니까..

문 : 진술인은 당시 어느정도로 취한 상태였나요

답 : 계속 많이 먹었는데 적당히 취해있었어요. 레몬드랍으로는 잔으로15잔정도니까 한병이상 먹은것같고 엑스밤은 잔으로 8잔정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정신 보다는 몸이 먼저 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문 : 피의자는 어느정도로 취해 있었나요

답 : 그사람은 술먹어서 힘들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문 : 진술인은 당시 본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도였나요

답 : 네.

문 : 피의자를 따라 들어간 고시원 위치를 기억 하나요

답 :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방 위치만 들어갔을 때 1층에서 제일 왼쪽 끝방인것만 기억해요. 그냥 고시원촌 동네였어요. 고시원상호명도 기억이 안나요. 지도로 특정도 못하겠어요.

문 : 고시원에 들어간 시점부터 피해가 있었던 상황까지 진술하세요

답 : 들어가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아르망디 술인가 그걸 비싼 술이라면서 주더라고요. 한모금 진짜 먹었어요. 저는 그때 코트를 입은채로 침대 밑에 쭈그려서 앉아 있었어요. 덤지 않냐고 코트를 벗으라고 해서 코트는 벗고 가방은 바닥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피의자가 침대에 와서 앉아보라고 해서 침대에 앉았는데, 불을 끄고 오더니 갑자기 구석에서 콘돔을 끼는게 느껴져서 제가 "뭐하는 거냐, 나는 안한다"라고 해서 "(피의자가)알겠다"면서 콘돔을 뺐어요. 그리고 침대에 와서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쉬다가자고 누워만 있자고 하다가 거의 바로 제 위로 올라타서 뽀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나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워있고 자기 성기를 빨아보라면서 성기를 제 얼굴 앞으로 대고 있었고 저를 잡아당겼어요. 제가 싫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냥 사탕 빨듯이 하면 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잠깐 했어요. 한 20초 빨았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멋대로 계속 했어요.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계속 만졌어요. 한 1~2분 계속 그렇게 만졌던 거 같아요. 다리좀 벌려보라면서 ~~강제로 벌게 함 (스스로 벌게 함)~~

문 : 피의자의 구강성교 요구에 진술인이 스스로 응한 것인가요

문 : 진술인은 당시 본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도였나요

답 : 네.

문 : 피의자를 따라 들어간 고시원 위치를 기억 하나요

답 :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방 위치만 들어갔을 때 1층에서 제일 왼쪽 끝방인것만 기억해요. 그냥 고시원촌 동네였어요. 고시원상호명도 기억이 안나요. 지도로 특정도 못하겠어요.

문 : 고시원에 들어간 시점부터 피해가 있었던 상황까지 진술하세요

답 : 들어가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아르망디 술인가 그걸 비싼 술이라면서 주더라고요. 한모금 진짜 먹었어요. 저는 그때 코트를 입은채로 침대 밑에 쭈그러서 앉아 있었어요. 덤지 않냐고 코트를 벗으라고 해서 코트는 벗고 가방은 바닥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피의자가 침대에 와서 앉아보라고 해서 침대에 앉았는데, 불을 끄고 오더니 갑자기 구석에서 콘돔을 끼는게 느껴져서 제가 "뭐하는 거냐, 나는 ^{안한다}"라고 해서 "(피의자가)알겠다"면서 콘돔을 뺐어요. 그리고 침대에 와서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쉬다가자고 누워만 있자고 하다가 거의 바로 제 위로 올라타서 뽀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나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워있고 자기 성기를 빨아보라면서 성기를 제 얼굴 앞으로 대고 있었고 저를 잡아당겼어요. 제가 싫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냥 사탕 빨듯이 하면 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잠깐 했어요. 한 20초 빨았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멋대로 계속 했어요.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계속 만졌어요. 한 1~2분 계속 그렇게 만졌던 거 같아요. 다리좀 벌려보라면서 ^{강제} ^{반대} ^함 (스스로 벌려서) ³⁵ ^{함으로}

문 : 피의자의 구강성교 요구에 진술인이 스스로 응한 것인가요

답 : 네

문 :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안하면 계속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했어요.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안치우니까
20제 추가 계속.. ~~앞으로~~ ~~내~~ ~~뺨~~ ~~게~~ ~~웨이~~ ~~깎~~ ~~잡~~

문 : 당시 진술인은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 이때 오프숄더 형식의 원피스를 입은 채 누워있었어요.

문 : 피의자의 옷 상태는 어땠나요

답 : 불을 끄고 콘돔을 껴다 뺐을때부터 이미 바지는 벗고 있었고, 팬티는 구강성교를
요구할 때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 : 이후의 상황을 진술해 보세요.

3자 추가 답 : 제가 오프숄더를 입고 있었는데, 오프숄더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 빨고
그랬어요. 저보고 "속바지를 벗어봐라" 하고, 제가 안벗으니까 (피의자가) 제
속바지를 직접 잡고 내렸어요. 팬티는 안벗겼고 그냥 팬티 사이로 성기를 넣으려고
했어요.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손가락도 넣었는데 그냥
1자 추가 이것도 넣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콘돔을 안졌는데 뭘
2자 삭제 넣냐"고 하니까 콘돔을 낀다면서 거기서 바로 갖고와서 바로 껴어요. 방이 진짜
좁아서 어디서 바로 가지고와서 껴어요. 저는 진짜 넣지 말라고 했는데 팬티
사이드로 넣었죠.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좋아?"
라는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팬티 뺐다고 하지말고 함~~ 해서 제가 뒤돌아
누웠어요. 뒤로 또 성기를 질에 넣고 ~~자정을 했어요.~~ ~~에 그야 하나 아니 그냥 돌았~~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다시
~~하러 내 몸이 드러나도록 신발, 칼기만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제 가방이랑 신발이랑 코트가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어쩔나라고 하니깐 "모르겠다 나는 손 안땀는데 니가 어디다 뒀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클럽을 가기로 했었으니까 제가 클럽 언제갈건데? 라고 했는데 좀만 이따가 가자고 했어요. 정확한 순서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 전에 뽀뽀든 뭐든 하긴 했어요. 아마도 화장실을 갔다오고 난 뒤 성관계를 했던 거 같아요.

문 : 피의자가 사정을 할 때 콘돔을 끼고 있는 상태였나요

답 : 제 기억으로는 피의자가 중간에 콘돔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끼고 있었어요.

문 : 피의자가 뒤로 돌으라고 했을 때 진술인이 스스로 돌아누운 것인가요

답 : 네.

문 : 피의자의 말대로 돌아누운 이유가 무엇 인가요

답 : 자꾸 "돌아라" 하니깐 제가 "왜 돌아?" 라고 했더니 다시 "돌아라"라고 해가

8자 추자 ~~고~~ 저도 ~~슬쩍~~ 하니깐 성관계를 하려는 자세로 돌지 않고 살짝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웠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엉덩이를 돌렸죠. (눈은 자살로 화제를 만들.)

11자 추자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이 왼쪽으로 누워있는 신체를 옆드리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렸나요

12자 추자 답 :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나요. 그냥 저한테 돌아라고 하고.. 그 사람이 ~~옆으로~~ ~~뒤로~~ ~~시킴~~

문 : 피해 당시 피고소인이 어떤 방식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나요

답 :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누워있으면 다리짚 벌려

13자 추자 ~~봐라~~ 하면서 제 다리사이로 자기 몸을 넣었어요. ~~아잉새로~~

문 : 진술인은 피의자의 범행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14자 추자 답 : 그냥 하지마라, 그만해라 이려고 나서 조금 쉬자면서 옆에 티비를 틀었어요. "잔사 안된다" 등등 ~~깨달음~~ ~~→~~ ~~최선~~ ~~한~~ ~~말~~

리모콘을 쥐어줘서 개는 옆에 있었고 저는 "언제 갈꺼냐"고 하니깐 "좀만 더 있다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제가 티비를 안본다고 하니깐 저를 눌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진짜 조금만 쉬고가라, 자고가라고" 라면서 계속 저를 붙잡았어요.

문 : 그 이외에 피의자가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할 때 진술인은 벗어나려고 하거나 몸을 피하거나 한 내용이 있나요

답 : 네. 손으로 밀쳤는데 술에 취해서 힘이 없었어요. 하지말라고 하는데 계속 했죠.

문 : 당시 피고소인의 고시원 방에서 나가거나 옆 방 또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답 :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이)

문 : 진술인은 위에서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뒤 곧바로 귀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인가요

답 : 저도 그때 왜 뛰어나갈 생각을 안했는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일단 저를 때리고 협박하고 그런건 없었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들을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일단 제 가방 코트가 다있었고 정확히 성기삽입 전인지 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나가서 다른데로 갈줄 알았던거죠. 다른데로 가야 하니까. 저는 다른데로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티비볼 때 제가 안본다고 간다고 하니깐 좀만이따가 간다고 해서..

그리고 중간에 피의자도 한번 화장실을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방이랑 있는데 없는거예요 개가 갔다와서 어떡냐고 그러고 그사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저한테 04:30에 가자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죠.

문 : 피의자가 화장실을 정확히 언제 갔나요

2차 추궁 답 : 성관계 다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저는 나가려고 했는데 가방이랑 이런거 다 없고..

문 : 이후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나요

9차 추궁
15차 추궁
2차 삼계
3차 추궁
2차 삼계
답 : 계속 힘으로 저를 옆에 누워있게 했고 그러다가 또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술이 좀 깼는지 진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도 삽입하지 않고 그냥 같이 누워 있었죠. 04:30~04:45쯤 간다고 제 짐을 찾으려고 하다보니 가방은 천장안에 있었고 제 ~~가방~~ ^{가방}은 어디 상자안에 있었고 코트는 옷장안에 있었어요. 제가 짐을 다 찾는동안 개는 침대에 누워서 폰을 하고 있었고 저는 다 챙겨서 '너 클럽 안갈생각이지? 나 간다' 이러면서 버스타러 갔어요. 05:00쯤이라 버스를 타고 갔어요. 논현쪽 버스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문 :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함께 클럽에 다시 갈 의사가 있었던 것인가요

2차 추궁
답 : 그냥 클럽에 가기로 했던 사람이니까 솔직히 가고싶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진짜 애는 뭘생각으로 날 데려온건지 확인을 하려고 물어봤어요. 저는 빨리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① 이런 일이 처음이고 신데도 비논리적인 뜻하는 생각이 신데도 생각 못했고 이 일의 인과관계 '내 집을 가야한다'가 확연히 있음

문 : 피해 이후 피의자와 연락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있나요

4차 추궁
2차 삼계
3차 추궁
2차 삼계
답 : 사건 이후 연락한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사과~~ ^{사과} ~~어떻게~~ ^{어떻게} ~~알았을때~~ ^{알았을때} 그날 오후 2시가 되도록 아무말이 없길래 바로 차단을 했고 카톡방, 대화방 다 나왔어요.
내 쪽으로 바로 유세에게 전화번은 차(차)로 주거나 그 사건에 대해 말하거나, 이런 연락을 받아도 안가
② 페이스북 스토리
그런데도 번번하게
카톡방을 만들어 다 끊었어요. 아예 제 계정도 삭제했어요.

문 :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에 카카오톡 채팅 내용이 있는데 누구와 주고받은 것인가요

답 : 그거는 같이 갔던 박시언이라는 언니랑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문 : 카카오톡 채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답 : 처음에 이제 제가 '곧 다시 페이스간다'고 말했고 언니가 '집에 언제갈거냐'고 물었을 때(03:34) 제가 피의자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일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간다더니 속았어'라고 보냈고 이후에 언니한테는 이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언니는 집 가라고 나는 알아서 가겠다고 했어요.

문 : 피해 내용에 대해 말한 것이 있나요

답 : 안좋은일이 있었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아 근데 당분간 클럽 끊으려고 MD 이상했다고 MD라서 내가 방심한 듯 이런식으로 보냈어요.

문 : 사후피임약 처방받은 것 외에 이 사건 피해로 인해 병원진료받은 것이 있나요

답 : 해바라기센터 가서 채취했어요. 그 외에 제가 따로 병원진료받은 것은 없어요.

문 : 피의자와 서로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답 : 처음에 소개받을 때 카카오톡으로 MD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클럽에 도착했을 때 제 전화번호로 그 MD한테 도착했다고 나와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문 :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답 : 네.

문 : 사건을 송치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아니요

문 : 더 할 말있나요

답 : ~~정미~~ ~~정미~~ ~~정미~~

문 : 위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나요

답 : 네

문 : 위 내용 중 이의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 아님

정미
